관광특구 활성화로 전북관광 '재도약'

전북연구원,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정읍 내장산 ·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경쟁력 제고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정책브리프 '전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전북도 관광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정책방안 등을 제안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 법적 근거에 의거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에 도입된 제도로 전국 13개 시·도에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가 1997년에 지정되었다.

그러나 도내 관광특구는 지정된 이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사업 및 상품 및 코스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책브리프에서는 '전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제시를 위해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사업 내용검토 후, 전라북도의 관광특구 비전 및 방향, 특구별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비전으로 '함께 즐기고, 함께 만족하는, 전북 관광특구'로 명명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관광특구', '휴양과 힐링 최적의 관광특구', '장기체류하고 싶은 관광특구'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는 내장산 국립공원 주변 자원을 활용 '생태관광체험 중심 특구'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는 덕유산 국립공원을 활용'힐링여행 중심 특구'로 발전시킨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 개발과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시설개선 및 관광상품 개발, 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특구 발전을 위해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가 고도화되어야 하며, 주민참여 역량 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지원 및 재도개선이 필요하다. 관광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관광진흥법에서 타 법제도의 규제특례 사항을 명시하거나 관광특구 내에서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법에 최소한의 의제처리 조항 신설이 요구된다.

김형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들은 복잡한 여행지 선호에서 휴양과 힐링을 최적지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최적지로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체류하고 싶은 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 고향사랑기부 동참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일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을 방문해 도민과 출향 전북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도내 13개 시·군에 1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기부했다.

올해부터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폐지… 전북 6100명 지원 끊겨

전북도 "청년수당 지원 확대해 교통비 공백 메우겠다"

전북지역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던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됐다.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에 매월 수십만 원을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하는 청년들에게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3일 전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출·퇴근 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2021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었지만 지원 대상자의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까지 연장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은 청년 근로자는 전국 73만 5000여명(전북 2만 5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선대책 수립 용역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청년 근로자들의 답변은 93.8%에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지원사업 폐지에 청년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매달 10~30만 원 정도를 출·퇴근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5만 원이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A(33)씨는 "군산 수송동에서 산업단지로 출근하는데 매달 유류비로만 2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라 월급이 적은 편인데 교통비 지원마저 끊긴다고 하니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문모(27)씨도 "현 정부 들어와서 청년정책 예산을 많이 삭감해 청년 근로자들이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 만큼 올해도 연장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폐지되고 말았다. 전 정부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청년수당을 통해 교통비 지원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청년들에게만 국한되던 교통비 지원사업이 폐지된 만큼 대상을 더 넓혀 중소기업, 농·임·어업 종사자들에게 매월 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의 예산이 끊겨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 지급은 하지 못하게 됐지만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북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촌인력중개센터 '전국 최다'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북 농촌인력중개센터 33곳 선정
전북도, "다양한 시책 마련 · 농촌인력 부족 해소 만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농촌 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 전국 최다인 33개소가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고 3일 밝혔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또는 도시지역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로 농촌의 지역농협과 농업인단체가 담당한다.

지난해 전북지역에는 29개 센터가 운영됐는데, 연인원 196천 명 정도의 인력을 공급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 농가, 여성 농가 등 취약계층을 우선 공급함에 따라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올해도 농번기에 맞춰 근로인력을 제때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발굴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를 요청해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 5개소를 운영한다. 총 38개소를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인력을 활용·추진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됐다.

도는 취약계층과 소농·영세농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국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촌인력 지원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인력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산림분야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 추진

지원규모 4600만원 · 단체별 1개사업 지원… 9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는 도내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 체험·숲 탐방 및 숲 교육 등 산림문화·교육 활동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산림분야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도는 산림문화·교육 분야 사회단체 활동에 4,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추진 중이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회칙 및 정관서류 1부 등을 지참하고, 우편이나 도 산림녹지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숲 교육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전파하고 도민의 산림문화 인식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사업 등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산림문화·교육 분야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사업내용은 소외계층 숲 체험 및 교육, 올바른 산행문화 지도, 산림환경 보호 교육 등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원칙이다.

도는 공모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점검 및 부서 자체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을 확인하고, 2월중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단체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소통을 추진해 사업진행의 적정성과 단체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내년 단체 선정계획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모집 | 우석대학교 ·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방학특강(1~2월)과정 모집 | 환영

스피치 ◦ 긴장해소 ◦ 시낭송 ◦ 웃음코칭 ◦ 면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정통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좋은 인맥으로 즐겁게 학습합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스피치지도사, 시낭송지도사등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 강사 : 김정리(웃음코칭지도사, 레크지도사, 스피치지도사)외 전문강사

◎ 과 목 명 : 스피치기법과 리더쉽(원광대), 웃음코칭(우석대)
◎ 모집대상 : 대학생, 일반인 남, 녀 누구나(남,녀,노,소)
◎ 모집방법 : 선착순 각 25명 · 매주1회 야간수업
◎ 등록방법 : ① 전화접수 ② 방문접수 ③ 팩스접수
◎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우석:252-9601, 원광:850-5512)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